지구촌평생교육원

**거절을 두려워 말라**

문형욱 ㅣ 갓데이트 대표

한 청년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애 대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 청년은 “이성교제로 많은 아픔을 겪어 더 이상은 교제를 하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는 무조건 결혼 전제로 이성을 만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사실 이성교제는 순탄하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와 동시에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만남을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 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와 사귀다 헤어진 후엔 더 이상 이성교제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헤어지면 더 충격이 크다. 옛 연인을 자주 마주쳐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청년들 가운데는 ‘만나서 바로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연인과 너무 긴 시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힘들어하는 연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 이들이 왜 연애를 힘들어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교제가 결혼과 부부생활에 있어 많은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교제는 무엇보다 이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이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교제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 초기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성교제는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연인을 만나면서 이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성교제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방을 통해 인격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데이트에서는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며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훈련을 자연스레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자신의 내면을 이성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데이트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성교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청년들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이성교제를 시작하길 주저합니다. 상대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나중엔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건강한 것입니다. 이별은 감정적으로 볼 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땐 더욱 좋은 만남을 예비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배우자를 찾는 일종의 훈련과정입니다. 상대가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만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연애의 기술, 마음만은 프로] 발췌

|  |
| --- |
| 갓데이트는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훈련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단체 입니다. 갓데이트는 결혼을 위해 먼저 자신의 준비를 위해 훈련하는 모임으로 마음여행, 행복한 나에게프로포즈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결혼을 돕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회의 공식모임 중 3회(3/6/11월) 의 프로그램을 지구촌평생교육원과 함께하며 믿음의 교제와 훈련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2박3일 힐링캠프 등의 모임을 통해 건강한 만남의 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goddate.co.kr / www.gdfamily.co.kr  문의 : 0505-197-1300 |